

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공장에 들어간 첫 로봇 팔, 유니메이트(Unimate)

원문 주소

<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0229/>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뜨거운 쇠파스로 막 찍어 낸 자동차 부품을 집어 올려 옮기는 일은 오랫동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. 부품은 손을 델 만큼 뜨거웠고 공장 안에는 유독한 연기가 가득해, 조금만 방심해도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. 1961년 미국 뉴저지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이 위험한 일을 사람 대신 맡은 기계가 처음 등장했습니다. 커다란 상자 같은 몸통에 팔 하나가 달린 이 기계는 기억해 둔 동작을 지치지 않고 되풀이했습니다.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으로 꼽히는 ‘유니메이트(Unimate)’입니다. 본 자료에서는 유니메이트가 한 발명가의 특허에서 출발해 공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부터, 기계의 생김새와 동작을 배우는 방식, 대중 앞에 선 모습, 그리고 오늘날 산업용 로봇에 남긴 유산까지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. 산업용 로봇 시대를 연 첫 번째 팔 한 장의 특허에서 시작된 로봇 유니메이트의 출발점은 발명가 조지 디볼(George Devol)이 낸 특허였습니다. 학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계를 다뤄 온 기술자였던 그는 공장의 반복 작업을 기계에 맡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. (1) 프로그램으로 물건을 옮기는 장치디볼은 1954년 12월 10일 ‘프로그램된 물품 이송(Programmed Arti